

케뱅크, '상장 문턱' 넘었지만 몸값은 뚝뚝... 연내 상장 '글썸'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통과 시총 4조 증발... 연초 대비 반토막 주가 1만1000원... 1년 새 최저가 IPO 시장 한파에 상장 시기 조절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최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IPO(기업공개)시장이 얼어붙어 있고, 올해 시가총액(시총)이 4조원가량 증발한 상황이어서 연내 상장이 미뤄질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20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6월30일 예비심사신청서를 청구한 지 3개월 만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6년 1월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수익은 2878억원, 당기순이익은 225억원을 시현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457억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이며 지난해의 두 배에 달하는 수익을 받기 만에



케이뱅크 본사 전경.

/케이뱅크

시현하며 눈길을 끌었다.

케이뱅크는 올해 상반기 금리인상 영향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수익 안정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반기 케이뱅크 비이자이익은 4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85억원) 대비 약 50% 감소했다.

다만 암호화폐시장 침체로 업비트가 동기 대비 약 90%의 수익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수익 안정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수익안정화에 성공한 케이뱅크는 연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주식시장이 지속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IPO시장도 침체일로다. 주식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주가는 장외시장에서 1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최저가다. 올해 초 2만4000원까지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9개월 만에 54.1%나 하락했다.

지속적인 주가하락으로 시총도 크게 쪼그라 들었다.

이날 기준 케이뱅크의 추정 시총은 4조1326억원이다. 올 1월 8조1000억원을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4조원이 증발한 것이다.

지난 6월 30일 케이뱅크가 한국거리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만 해도 시총은 6조4000억원이었다.

케이뱅크의 기업가치 감소 원인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지속과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금리인상), 강달러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케이뱅크의 연내 주식시장 상장이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케이뱅크의 기업가치는 최대 8조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가치가 4조원에 불과하고 케이뱅크 측에서도 최소 7조원의 기업가치를 원하고 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케이뱅크의 연내 상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KT 경영진의 상장 목표 시가총액과 투자자들의 적정 시가총액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상장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한미약품 항암신약 '포지오티닙', 美 FDA 허가 '적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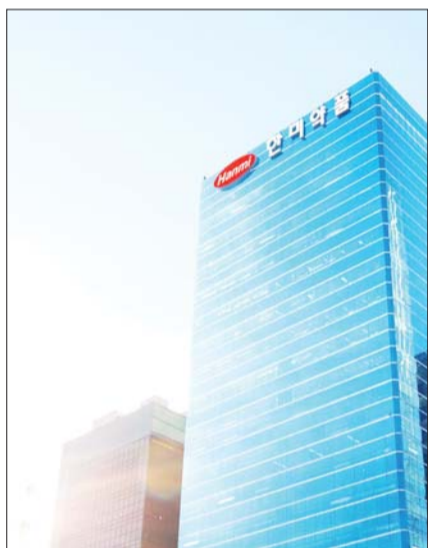
최종 허가 앞두고 '먹구름' 효능·안전성 등 우려 제기

한미약품이 개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포지오티닙'이 최종 허가를 앞두고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는 두번째 항암 신약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한미약품측은 포지오티닙이 환자에게 주는 혜택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신약 허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 FDA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항암제자문위원회(ODAC)는 한미약품의 항암신약 '포지오티닙'의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ODAC은 항암신약의 시판허가에 앞서 임상적·기술적 평가를 하기 위해 중



한미약품 본사 전경.

양학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다. FDA의 신약 승인 결정에 앞서 권고 등의 의견을 낸다. 포지오티닙은 오는 22일 열릴 ODAC 회의를 거쳐 FDA의 최종 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회의 전 FDA가 공개한 '브리핑 문서'에서 따르면 포지오티닙의 임상 결과가 신속 승인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상 결과, 진행성 사람상피세포종양인자 수용체 2형(HER2)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포지오티닙을 투여했더니 객관적 반응률(ORR) 28%를 나타냈고, 반응 지속기간(DOR) 중앙값은 5.1개월이었다. ORR은 종양이 일정량 이상 줄어든 환자 비율을 뜻한다.

ODAC은 "객관적 반응률 및 반응 지속기간 결과는 다른 사용 가능한 치료법에 비해 의미 있는 이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고 임상적 이익을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만약 포지오티닙이 신속 승인을 받는다면 현재까지 승인된 폐암에 대한 표적 치료제 중 가장 효과가 낮은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문서에 따르면 포지오티닙 16mg의 일일 1회 투여 환자의 85%가 3~4등급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57%의 환자는 투약 용량 감소를 경험했다. 임상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용량 최적화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의 미국 파트너사인 스펙트럼 측은 포지오티닙이 환자에게 주는 이익이 위험 대비 훨씬 크다고 신약 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스펙트럼은 "항암제의 특성상, 약제를 통해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위험간의 해석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위험이 충분히 관리 가능하거나, 환자에게 주는 이익이 위험 대비 유용할 경우 신약으로 허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지오티닙은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HER2 엑손20 변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 중 하나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혁신 치료제다. 특히, 포지오티닙은 정맥 주사 형태가 아닌 경구용 제제로 암 환자들에게 투약 편의성을 제공한다.

스펙트럼은 "현재까지 보고된 이상 반응들은 타 약제들에서도 나타나는 사례들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다"며 "포지오티닙이 환자에게 주는 혜택이 위험보다 분명히 크다"고 강조했다.

ODAC 논의 후 내려지는 권고는 FDA의 최종 승인 여부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FDA는 ODAC 권고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검토한 뒤 처방의약품 신약 신청 수수료법(PDUFA)에 따라 오는 11월 24일까지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포지오티닙의 유용성에 대해 파트너사인 스펙트럼과 함께 ODAC에서 충분히 설명해 환자를 위한 긍정적 권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킹달러 등 악재 쌓인 정유사, 세계 '황재세' 움직임에 한숨

정제마진 하락·고환율에 '시름'

높은 정제마진과 석유제품 수출 호재로 풍성한 상반기를 보낸 정유사들이 최근 대내외적인 변화로 수익성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석유제품 판매가격에서 원유 구입비용을 뺀 정제마진 하락은 급락폭이 큰 상태다. 업계에서는 정제마진의 손익분기점을 통상 배럴당 5~6달러 선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는 손익분기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2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싱가포르 정제마진은 2020년 9월 이후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배럴당 -1.64달러를 기록했다. 주간 정제마진도

배럴당 2.7달러로 연중 최고치인 29.5달러를 기록했던 6월 넷째 주와 비교하면 9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제마진은 정유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공장의 정제 가동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대응해 볼 수도 있지만 가동률을 정제마진이 바뀌 때마다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대내외적인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중 하나다. 특히 이번 정제마진의 급격한 하락은 중국발 공급 확대 소식 때문이다. 중국이 석유제품 수출 쿼터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에 공급 증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다.

중국석유화학공업연합회(CPCIF)가 석유제품 수출량을 확대하면 중국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출 쿼터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올해 마지막 수출 쿼터 예상 규모는 150만톤이었지만 중국 정유사들이 추가로 150만톤의 수출 쿼터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 시장에서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로 정제마진 하락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휴가철)'이 끝나 휘발유·경유 소비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끝까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수요 위축을 부추기고 있다.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철 난방 수요를 기대해보지만 아직은 정제마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인 상태다.

여기에 국내 정유사들은 고환율에도 영향을 받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유업은 달러 기반의 거래를 하는 산업이기에 환율의 영향을 크게 안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급격하게 오르는 환율에는 환차손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상 정유사들은 원유를 구입한 뒤 일정 시간 이후에 대금을 지불한다. 이때 가격은 당시 환율이 아닌 결제 현시점의 환율로 계산된다.

국내 4대 정유사에 속한 한 관계자는 "즉시 거래를 한다면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대금 지급은 보통 즉시 거래가 되지 않는다"며 "환율의 오르내림이 야일상적이지만 요즘 같이 하루가 다르게 환율이 급등하는 환경에서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국제적으로 '황

재세'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국회에서 언급된 이후 도입 기미가 보이지는 않지만 EU(유럽연합)와 UN에서는 황재세 도입이 본격적으로 예고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회의 첫날 연설에서 "모든 선진국들에 화석연료 회사들의 황재세에 대한 세금 부과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황재세' 부과에 대해서 언급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석유·천연가스 회사를 상대로 초과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정유사를 비롯한 에너지 기업에 195조원에 이르는 황재세를 걷겠다는 내용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들은 '정제'를 하는 것이지 '시추'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허정원 기자 zelkova@